

제2회

농업인의 날 행사때 산업포장 수상한

장현축산

안장현 사장

취재 : 이 병 석

“고정관념을 깨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난 11월 11일 제 2회 농업인의 날 행사 때 양돈부문 산업포장을 수상한 장현축산 안장현 사장(42세)은 지난 '87년도에 농장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만 10년을 돼지와 함께 해 온 양돈인이다.

처음 시작할 당시에 모든 20두를 가지고 여주군 점동면 처리에 등지를 튼 안장현 사장은 10년이 지나는 동안 규모를 착실히 키워 현재는 돈사 규모 650여평에 주간 8복, 모든 200두 규모의 증견농장으로 성장하였다.

돈가 폭락시기에는 사료조차 공급 못받은 경험있어

안장현 사장은 양돈을 시작한 후 10년동안 돈가가 폭락하는 등 한창 어려운 시기였던 지난 '89년 당시에는 사료회사에서 사료를 공급해 주지 않는 등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저렴한 축협사료를 먹이고, 양축자금을 지원받아 슬기롭게 견딘 후 지금까지 양돈산업의 전반적인 문제 외에는 별다른 큰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고 농장을 경영해 왔다고 한다.

안장현 사장은 지난 '79년도에 군대를 제대하고, 인쇄업 등 여러가지 다른 타 업종에 근무하

다가 '83년부터 '87년까지 본회 제1종돈능력검정소에 입사하여 돼지 검정업무를 맡아 여러 농장을 다니며 관찰하던중 양돈에 대한 깊은 매력을 느끼고, 그것에 희망을 가지게 되면서부터 양돈업을 할 것을 마음 먹으면서 그동안 저축해 놓았던 돈과 양축자금 등을 지원받아 지난 '87년 검정소를 퇴사하고 모든 20두로 양돈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특히 남다른 열정으로 돼지에 정성을 쏟으며 4~5년을 열심히 달려온 안장현 사장은 혼자만의 경영방법으로는 계속적인 성장은 힘들것으로 파악하고, 지난 '92년에 양돈조합에 가입하여, 그곳의 한 구성원으로 경영마인드를 쌓아갔으며, '93년도에는 양돈조합이 제공하는 데이터 피그(Data Pig) 전산프로그램에 가입하여 혼자만의 경영방식을 탈피하고, 여러가지 자료를 제시하며 경영을 컨설팅해주는 데이터 피그의 조언을 받아들여 농장 전산처리를 실시한 이후 농장성적이 '93년 PSY(모돈 1두당 연간 이유두수) 23.2두에서 '97년에는 24.6두로 성장하는 등 꾸준한 성적의 향상을 보이게 되었다. 물론 '93년 농장 전산처리실시 이전의 PSY가 23.2두인 것을 보면 안사장이 얼마나 그 나름대로의 농장경영을 착실히 했는지를 알 수가 있다.

장현축산은 지난 '94년에 1억 3천만원의 시설자금을 지원받아 현재 모돈 200두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였으며, 분뇨처리는 돈사규모 1,000평까지 처리가 가능한 교반식 발효건조기를 설치하여 가동중인데, 그러나 안사장은 가동비의 50%만 건져도 성공이라고 할 정도로 다른 양돈농가와 마찬가지로 분뇨처리에 대해서 만큼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프로는 성적으로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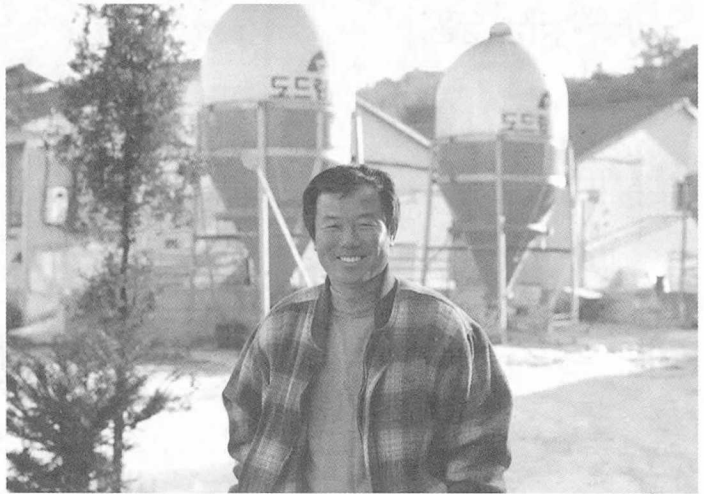
현재 근무직원은 3명인데 직원들이 농장 전반적인 사항을 자율적으로 잘 해 주고 있으며, 안사장이 농장관리를 직접하지 않고, 경영적인 부분만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직원들의 협조가 상당히 잘 된다고 한다.

장현축산의 후보돈 갱신율은 35%이며, 전량한 종돈장을 통해 후보돈이 들어오고 있으며, 모돈회전율 2.38회전, 모돈의 비생산일수(NPSD)는 42.7일이며, 앞에서도 서술했지만 가장 최근의 PSY가 24.6두의 상당히 높은 성적을 보이고 있다.

한편 본회 여주지부의 감사이기도 한 안사장은 산업포장을 수상한 소감을 묻는 질문에 “저보다 더 잘하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상을 받게 돼서 죄송한 마음 뿐이고, 추천해 주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하겠다”라고 겸손하게 답한다.

그러나 어머니와 함께 부인과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둔 한 가정의 가장으로써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살아오면서 “프로는 성적으로 말한다”라는 생활신조를 가지고 과정이 아무리 좋았더라도 결과가 좋지 않았다면 그것은 실패한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안사장의 모습속엔 그 누구보다 성실함으로 가득차 있었다.

안사장은 지금의 IMF지원상황에서 환율 폭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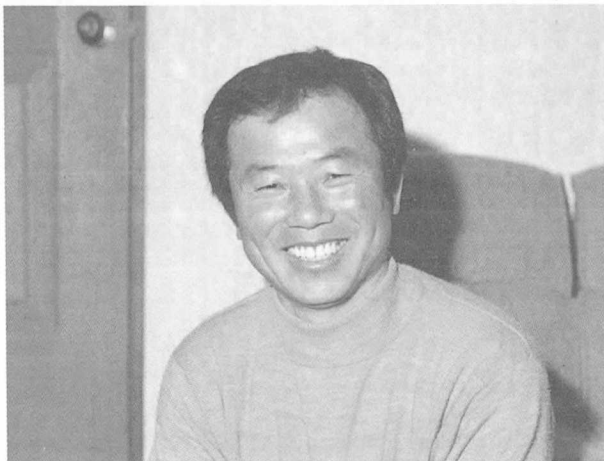
▲장현축산 안장현 사장, 농장을 배경으로 포즈를 취했다.

의 환차손으로 인해 국내 축산업계도 상당히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우선 양돈생산비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사료비가 작년엔 20~30%가 올라 우리농장이 총 7,000만원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했는데 이런 상태에서 또다시 20%가량 사료값이 오를 경우 양돈경영이 상당히 압박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내농장의 생산성을 최대한 높이고 양돈장 내에서 경영주 스스로 획기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이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질문에 안사장은 “현재 계획은 모돈 400두까지 늘리는 것을 계획하고 있지만 요즘 국내 경제가 처한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계속 투자를 해야할지 판단하기가 힘들다”라고 답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양돈인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느낄 수 있었다.

다른 사람 의견 경청, 농장기록이 가장 중요해

안사장은 결코 고집을 부리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농장을 경영하다가 고민이 생기거나, 농장에 문제가 생기면 이것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협회 월례모임이나 조합원들과 함께 문제를



▲안장현 사장의 해맑은 웃음속엔 그 누구보다도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고정관념을 깨면 농업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강조하는 안사장은 지금은 모든 양돈농가가

동반자이므로 같이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상대방의 좋은 점을 서로 받아들여 내것을 만들어야 만이 모두가 공존할 수 있다고 말한다.

특히 지금의 장현축산이 있게 된 것은 기록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항상 자기농장의 성적을 면밀히 분석하여 문제점을 찾아내는 등 누구보다 앞서 나갈려고 하는 선의의 경쟁의식을 가지고 왔기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양돈가들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 등의 열혈이 있으며, 조합은 조합원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단체이므로 이 둘이 장 융화되어 생산자들을 하나로 묶어야 국내 양돈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나름대로의 소신을 밝혔다. **養豚**

돈분뇨처리시설에 고민하십니까?

일본 「中部에코텍」 초청 양돈 시설 방문단 모집

동사는 일본 中部飼料의 子會社로, 지난 20年間 돈분뇨처리 시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설투자를 하시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분을 위하여 이 방문을 계획하였습니다.

1. 방 문 일 : 1998. 2. 8(일) 12시 김포공항 출발(아시아나항공)
1998. 2. 10(화) 16시 김포공항도착(아시아나항공)
2. 행사내용 : 토론회 「일본의 현대양돈 관리」 중부사료 협찬
중부사료 양돈연구농장 시설 방문
중부에코텍 돈분뇨처리시설 방문 토의
2500두 양돈장 방문<변경가능>
3. 경 비 : 47만원(항공료 27만원+기타 20만원 12명기준)
4. 참가신청 : 10만원 송금(농협 058-01-069236 김영환)
5. 신청마감 : 1998. 1 30(여권소지자에 한함)

주최 : 한국 중부 에코텍

전화 : (02)456-8456, 팩스 : 458-0755